

1. 일본-멕시코 FTA 개요

- 협상 : 2002년 11월부터 약 2년간 협상
- 발효 : 2005년 4월 1일(2004년 9월 17일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멕시코 방문을 계기로 일본-멕시코 FTA 협정안에 서명)

2. 양국간 핵심 상품 양허 내용

☐ 일본은 전체 품목 중 91%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관세인하에 합의

- 일본이 상당 부분 농산물 관세철폐를 포함하기는 하였으나 중요 품목은 쿼터를 부여하거나 예외품목으로 보호
 - 레몬, 아보카도, 호박, 파파야 등 약 850개 품목의 농림수산물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즉시철폐에 포함된 품목은 대부분 당초부터 무관세 품목
- 가장 중요한 품목은 돼지고기로서, 일본은 동 품목에 대해 쿼터를 부여하고 현행 관세의 절반인 2.2%를 부과하기로 합의
 - 쿼터는 2005년 3.8만톤에서 단계적으로 늘려 2009년 8만톤까지 확대 예정

☐ 멕시코는 철강제품과 자동차에 대해 부분적으로 시장개방

- 특수강은 즉시 관세철폐, 일반 철강제품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발효후 6년차부터 10년차까지 단계별 관세 인하
- 자동차는 연간 판매대수의 일정비율(5%)을 무관세 수입허용, 이를 매년 확대하고 7년차부터 무관세 적용

3. 일본-멕시코 FTA의 1년 성과 평가

- ☐ 발효전 1년('04.4-'05.3)과 비교하여 발효 후 1년간 일본의 대 멕시코 수출은 45%가 증가한 8,580억엔, 대 멕시코 수입은 22%가 증가한 2,929억엔

일본-멕시코 FTA 체결 후 총교역량 변화

(단위 : 백만엔)

구분	발효전 1년(04.4-05.3)		발효후 1년(05.4-06.3)	
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
총 수출	592,146	37.5%	858,041	44.9%
총 수입	240,068	10.7%	292,862	22.0%
수 지	352,078	-	565,179	-

자료 : 한국무역협회 일본무역통계

☐ 일본의 대멕시코 품목별 수출

- FTA 발효후 라디오·영상기기 부분품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

일본의 대 멕시코 주요 품목별 수출

(단위 : 백만엔)

구 분	발효전 1년(04.4-05.3)	발효후 1년(05.4-06.3)	
	금액	금액	증가율
총수출	592,146	858,041	44.9%
자동차(87류)	154,082	244,647	58.8%
승용차(8703)	78,702	111,496	41.7%
자동차부품(8708)	63,718	113,284	77.8%
전자제품(85류)	196,372	319,514	62.7%
라디오영상기기부분품	69,299	164,967	138.1%
철강(72류)	49,029	58,583	19.5%
철강제품(73류)	8,267	11,804	42.8%

자료: 한국무역협회 일본무역통계

□ 일본의 대 멕시코 품목별 수입

일본의 대멕시코 주요 농산물 수입

(단위 : 백만엔)

구분	발효전 1년 (04.4-05.3)	발효후 1년(05.4-06.3)	
	금액	금액	증가율
총수입	240,068	292,862	22.0%
농산물(1~24류)	56,863	61,146	7.5%
육류(02류)	22,305	27,578	23.6%
돼지고기(0203)	19,446	20,590	5.9%
쇠고기(0201~2)	2,065	5,360	159.5%
식용설육(0206)	755	1,592	110.8%
가금류(0207)	0	0	-
과실 및 견과류(08류)	12,552	12,552	0.0%
오렌지(080510)	16	0	-100.0%
오렌지주스(200911)	218	435	99.8%

자료: 한국무역협회 일본무역통계

□ 01류부터 24류까지의 농산물 수입은 총 569억엔에서 611억엔으로 7.5% 증가

- 농산물중 육류(02류)의 증가율이 23.6%이며, 일-멕시코 FTA의 최대 이슈품목이었던 돼지고기 수입은 5.9% 증가
- 쇠고기는 21억엔에서 54억엔으로 159.5% 증가, 육류의 내장은 8억엔에서 16억엔으로 110.8% 증가
- 일본으로 수입되는 쇠고기는 대부분 호주산이나 차츰 뉴질랜드와 멕시코산 쇠고기 점유율이 높아지는 추세임.
- 닭고기를 포함한 가금류 수입실적은 없음.